

인원 자료		
인원	구분	기타
60.5	A 4-1	20p

장애인 교육권 보장에 대하여

번호:1/28 토론자:HANEUL 수신자:ALL 토론일시:93/11/13 14:33 길이:50줄

안녕하세요? 이 토론을 개설한 파란하늘입니다.

특수교육진흥법이라는 법이 바뀔려고 합니다. 이법은 말 그대로 장애아동 교육법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 법은 지난 77년에 생겨서 두번인가 바뀌었지만 다른 법이 바뀔때 고친것뿐 사실상 이번이 16년 만에 바뀌는 것 입니다.

그동안 고쳐져야 한다고 말도 많았고 해서 정부는 올해들어 이 법을 바꾸겠 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진행된 과정을 보기전에 일단 법이 바뀌는 순 서를 보면,

1.정부가 법을 바꾸려고 하면 대중 방향을 정해서 안을 만들고 이를 국민에게 알리며 불만 있으면 얘기하라고 합니다 (입법예고)

2.그리고 국민에 소리를 듣고 정부 최종안을 만들어 국회에 넘기고 3.국회의원들이 쿵쿵 쿵쿵하면 통과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법은 정부가 최종안을 만들어 국회에 낸 상태입니 다. 또, 민주당도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낸 상태이고요 그럼 진행된 과정을 보면, 지난 7월 정부는 장애아동도 분명히 의무교육에 포함시킨다고 하였습니다(입법예고안). 그래서, 신문에서도 막 떠들고 장애인계는 환영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에 낸 정부안을 보면 입법예고한 법과 너무 다른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의무교육부분입니다. 입법예고 당시 분명히 국민학교,중학 교를 의무교육으로 한다고 하고 (아예 얘기나 없었으면 몰라) 이제와서 안된 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태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아동은 의무교육에서 제 한되었습니다. 즉, 취학통지서가 날아와도 부모가 무시하면 그만이었습니다. 독촉이나 경고 한 번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있는 부모님들은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특수학교라도 넣었지만, 관심이 없거나 돈버시는데, 바쁘셨던 부모 님들은 이런 자녀들을 그냥 방에 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차고 직장을 구 할때나 결혼을 할 때는 정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학교를 제대로 못나오면 먹고살기 힘듭니다. 이렇게 방에만 있던 아동중에는 일반교육만 받으면 자기 직업을 갖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배워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육법 98조를 깨끗히 삭제해라.

교육법에는 모든 국민에 의무교육과 함께 의무교육의 면제(98조)를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장애아동은 국민도 아닙니까? 깨끗히 삭제되어야 합니다.

(참고) 교육법 98조 '학령아동이 불구,폐질,병약,발육불완전,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하여 취학하기 불능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미룸)할 수 있다.

그럼 중증 장애아동은 어떻게 하느냐고 생각하시겠지만 7월 입법예고때 정부가 말했었던 얘기중에 순회교육이라는게 있습니다. 즉, 교사가 방문하 여 치료와 교육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둘째. 시,군,구 차원의 판별위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모님들은 학 교를 알아보고 대학입시하듯 시험을 쳤는데 모든 아동이 공평히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라에서 장애아동들을 진단,평가,학교 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군,구 단위의 전문가로 구성된 판별위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 지금까지는 학교장이 마음대로 내보낼수도 있었고 안 받을 수도 있었습니 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번호:2/28 토론자:LEETK76 수신자:ALL 토론일시:93/11/13 16:30 길이:9줄 우리나라 인구의 약 10%인 400여만명이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법은 만인 앞에 공평하다는 말도 있는데

단지 신체가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에게 차별적으로 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당연히 장애인들도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 교사들이 장애 아동들을 교육시키기가 힘들다고 한다면 정부에서 주도해서 특수학교를 늘려야 합니다.

특수 학교가 몇 개 있긴 하지만 과연 지금 학교들만으로 충분할까요?

번호:3/28 토론자:CROSEM 수신자:ALL 토론일시:93/11/13 20:56 길이:115줄 이글 보시는 천 리안 가족들중에..

주위에 장애인이 몇명이나 되는지 헤아려 보셨나요? 지금 한번 헤아려 보세요.

하나..둘..셋...음...넷...

어떤가요?

이젠 여러분이 몸담고있는 직장이나..

학교에 장애인이 몇명이나 되는지 헤아려 볼까요?

어떤가요?

몇 안되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소이 말하는 문화국민인 우리들은..

가족중에 장애인이 있으면 이웃에게 자신의 가족이라는 것을..

밝히길 꺼려하고.. 자신의 형제자매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에..

창피함을 느끼고.. 자신의 애인이나, 친구나, 회사 동료가

장애인인 자신의 형제자매를 보는순간

가던길을 돌아가자고 말할만큼..

우리들은 문화국민입니다.

선천적..후천적.. 환경에 의하여..

자의가 아닌 또는.. 자의도 타의도 아닌..

어떠한 계기로인하여 장애인이라는..

또다른 이름을 가지고있는 친구..

동생.. 이웃이 우리의 주위에는 보이지 않게 존재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이웃들은 정상인이라는 우리와는 동떨어진..

존재로 생각하는 우리들에 의하여 사회라는 인생무대로 부터 밀려난체.. 자신만의 무인도에서..

홀로 외로이 살아가고있습니다.

재활학교, 특수학교에 가보았습니까?

TV 화면에.. 간혹 잡지에 눈요기거리로 나오는 글과, 사진과 아나운서의 설명을 들어보았습니까?

어떻던가요?

시청자들과 독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제작되고, 편집되는 사진과 글들말고도..

읽고 보는 사람들의 동정을 불러일으키는 무엇이 있습니다.

재활학교.. 특수학교에 가보았습니까?

그곳에는 인위적으로 조작된 감정이 아닌..

우리 자신의 생활과, 생각들을 다시금..
돌아보게 만드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정부의 높은 분들은 말씀들 하십니다.
장애인을 같은 인격체로서 대하자고 말입니다.
여러 금벳지파(구케으원 * 국회의원)들은 침 튀기며 말합니다.
어떤때는 자동차 바퀴에 타이어 타는냄새 풍기며 달립니다.
재활학교.. 특수학교.. 모두 돌아 다니면서
사진찍느라 데
바쁘십니다.

왜 그분들과 우리는 이러한 행동을 조금은 더 인정을 해주는 것일까요? 우리들
자신이 그들은 인정치 않으면서..

우리들 자신이 그들을 돌보아 주는것처럼 말입니다.
안타깝습니다.
화도 나고요.
어렵겠죠..

무조건 장애인들을 정상적인 학생들이 공부하는곳에 입학시킨다는건 어렵습니
다.

그러기에 특수학교, 재활학교가 있는것인데..
그 조차 손에 꼽을 정도로 몇 안되는 현실이니..
금벳지파 활동비에서 20%씩만 떼어낸다면..
일년에 특수학교, 재활학교 두개씩은 새로이 만들수 있을겁니다.
정부의 방침이 처음 발표되었을때 조금은 놀랐습니다.
우선,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구나.."
우선, 기분좋았던 놀람.
두번째는..
조금은 모자란듯한 안을 보고 난후..
"확실하지 못한 안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텐데.."
라는 걱정스러운 생각..
그후에..

지금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안되는구만.."
제가 바라는것은 초안을 잡으셨던 분들만큼도 아닙니다.
기왕 그렇게 인식을 하셨다면..

장애인들을 사회에 참여시킬수 있는 특수학교, 재활학교 들을.. 엉뚱하게 쓰이
는 예산들중에.. 10%만 마음쓰셔서..

장애인들이 사회에 참여할수 있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케할수 있는 그러한 배움의 전당(숲..)을..
년차적으로 늘려주실수는 없는가...
하는것입니다.

장애인 교육권 보장에 대하여...
당장은 어렵다고 봅니다.
무조건 시행하라고 하는것 역시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도는 환영합니다.
이러한 시도조차 없다면 언제 교육권을 보장받을수 있을지조차..

모를것입니다.

장애인인 친구와 이웃을 동등한 인격체로서 대할수있을때..

우리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때..

장애인들과 정상인이 섞여서 공부하는 모습은..

우리들의 눈에 자연스레 들어올것입니다.

부산의 맹아학교.. 울산의 태연학교(전국산재..) 운정학교..등등..

제 친구들과, 친구의 형.. 제 육촌동생..

등..

모두 입모아 말하더군요.

"그때가 언제가 될른지 누가 알겠나?"

번호:4/28 토론자:CROSEM 수신자:ALL 토론일시:93/11/14 13:17 길이:23줄 성진입니다.

괜히 섭섭함 "다.

조금은 다른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을텐데..

조금은 장애인들에 대하여 생각을 한다면 좋을텐데..

교육권 보장에 관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다른의견들은 ..

있으실터인데..

이 게시판 문 여신 하늘님의 의견에는 찬성입니다.

우선 종합적인 검교가 이루어 져야 할것입니다.

토

또다른 의견들은 없으신지요?

전 생각이 짧아서인지..

제가 느껴왔던 문제조차 지금은 생각이 나질 않는군요.

하늘님.. 부탁하나 할게요.

이 게시판 되도록이면 오래 지속할수있게 ..

신경좀 써주세요..

다른분들의 호응을 얻지는 못하더라도 몇분의 생각이나마 높은분들께서 조금은
헤아려 주실수 있게 말입니다.

아침을 늦게 먹어서인지... 점심이구나..

쩍... 저는 갑니다.

번호:5/28 토론자:BLEUCIEL 수신자:ALL 토론일시:93/11/14 19:53 길이:56줄

이 게시판을 연 파란하늘의 pop 아이디어입니다.

haneul은 천리안 아이디어고요...

우리나라 전체인구 4000여만명 중 약 10%인 400여만명이 장애인입니다.

그중에, 행정부의 보건사회부에 등록된 장애인은 100만명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300만이란 숫자의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그것은 장애인 본인의 무지와 가족의 무관심, 그리고, 정부의 무사안일
한 태도의 부산물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전 지하철 이용요금의 전액 감면 해주겠다는 뉴스보도를 접할 때가
있었는데, 전 여기에 조금은 부정적으로 생각했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하철을 타려면, 많은 계단을 오르락내리락해야합
니다. 과연, 그 많은 계단을 자신의 힘으로 오르락내리락할 수 있는 장애
인이 얼마나 될까하고요?

결국은 몇명안되니까 감면해주겠다는 거 아닌가요?

지하철역에 휠체어 길을 만들어 놓고선 감면해 주겠다고 해야지 도리가 아닌가요 ?

이와 같이, 전시 행정의 예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이번 94년도 대입에선 신검제도를 폐지한 대학이 몇 있다고 하는데, 이는 쌍수들어 환영합니다. 그동안은 고졸 장애인들은 대학에 가고 싶어도 신검 때문에 못가고 마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예기가 탄대로 흘렀습니다..

본인은 장애인입니다. 특수학교를 어렵게 들어가서 쉽게(?) 고교과정까지 마치고.. 지금은 방송통신대에서 교육을 전공하는 학생입니다..

어썬든, 현대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장애인을 무지에서 깨어나게 하는 방법은 장애아동 의무교육 뿐이 아닐까요???? 그다음에 능력이 있는 장애인에겐 고등교육과 직업교육을 각각 시켜서, 이들이 자활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정부와 사회의 책임이 아닐까요? 더 나아가 이들이 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번호:6/28 토론자:BLEUCIEL 수신자:CROSEM 토론일시:93/11/14 20:00 길이:9줄
너무 걱정 마시길...

아직 3주라면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께도 많은 관심과 협조와 글 부탁드립니다..

번호:7/28 토론자:AUDIOROX 수신자:ALL 토론일시:93/11/14 20:36 길이:105줄
안녕하세요? 라디오록스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현실은..

장애자들이 참 살기 힘들게 되어 있죠..

주위의 차가운 눈초리(따듯한 눈으로 바라봐 주는 사람도 마니요~)들과..

여러가지 부당한 대우..

장애자들의 불편을 덜어주지 못하는 공공시설물들..

여러가지 정말 문제점은 많은게 사실입니다만은..

우리나라도 점차 변해 가고 있습니다..

많은 힘을 기울이지 않아서.. 가시적인 면이 보이는것은 아니지만..

알게 모르게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옛날보다.. 장애자들의 취업율도 높아졌고..

또한 장애자들도 무리없이 할수 있는 아이디어에 관련된 일들..

컴퓨터 산업 등등..

몸을 많이 쓰지 않고 머리로 할수 있는것들이 많아졌죠..

제가 아는 사람중에..

장애자 이면서도 전산인들 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장애자 이면서도 남들 못지 않게 좋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사지가 멀쩡한 사람들..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몸이 좀 불편한 사람들..

직접 땅을 일구지는 않지만..

좋은 아이디어와 생각들로 우리 사회를 살찌울수 있습니다.
장애자가 할 일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저..
단순히.. 불평이나 푸념만 하지 말고..
자기가 할 일을 찾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모든것을 할수 없고.. 또한 남의 도움 없이는 살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진짜 장애자로 만드는 생각이죠..
말을 못한다고 해서..
듣지 못한다고 해서..
팔 다리가 불편하다고 해서..
정신 박약이라고 해서..
그들이 할수 있는게 없는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할수 있습니다..
외국같은 경우..
장애인 복지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져..
많은 장애자들이 이런 혜택을 누리고..
또한 자기들의 앞날과.. 해야 할 일들을 찾아서 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단계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점점 변하고 있고..
또한.. 사람들의 눈도 그렇게 부정적이지 만은 않습니다..
자신이 몸이 어딘가 불편하다고..
자신이 장애인이라고 너무 낙담하지는 마십시오..
세상에.. 악한 사람보다 선한 사람이 더 많듯이..
여러분을 안 좋게 보는 사람들보다..
따듯한 시선을 줄수 있고..
또 동정해 줄수 있고 곁에서 도와줄수 있는 이들이 더 많다는 생각을 항상 하시고..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자신이 할 일을 찾아서..
세상을 즐겁게 살수 있는 마음 가짐을 가져야 할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쓰는 많은 장애인들..
그런 사람들을 볼때마다..
저는.. 한결 더 열심히 살아야 겠다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저에게도 장애인 친구가 3명이나 있죠..
그들을 볼때마다..
정상인인 내가 그들보다 더 힘겨워 하고..
더 나약한거 같아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다들.. 불편한 몸이지만..
열심히 배우려고 하고..
또.. 부지런히 살아가는 모습에..

나보다 저들이 더 낫구나..
 나보다 저들이 이 세상을 더 일깨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지가 멀쩡하고..
 어디 흠잡을데 없는 정상인인 내 자신이..
 조그만 일에도 힘겨워 하고..
 조금만 어려운일이 닥치면.. 금세 쓰러지고 마는 그런 모습에 비추어 보면..
 몸이 좀 불편한 장애인들..
 그 열악한 환경을 딛고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정상인 보다 더 깨끗하게 살고 있는거죠..
 어찌면..
 몸은 정상인보다 못해도..
 마음가짐과 정신만은 정상인을 앞지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껌..
 우리 주위에는..
 몸이 불편하지만.. 마음만은 자유로운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 여러분..
 몸은 좀 불편하지만..
 정신만은 우리들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곁에는.. 마음이 따듯한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지금은.. 열악한 환경이지만..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들을 위한 공간은 더욱더 늘어날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병든 정상인들에게..
 정신적인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부정적인 면에 신경쓰지 마시고..
 곁에 있어주는 마음이 따듯한 사람들만 생각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일을찾아..
 정상인들보다 더욱더 열심히..
 그리고 큰 일 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언제나 용기를 가지고 사세요..
 힘을 잃지 마시고..
 여러분의 곁에는 항상 우리가 있습니다..

- 레디오희스 -

번호:8/28 토론자:L2296693 수신자:ALL 토론일시:93/11/15 01:32 길이:31줄 안녕하세요? 다들

가끔씩 텔레비나 주위의 이야기를 통해 열심히 살아가는 장애인의 이야기를 들을때 면 왠지 부끄러워지는 저 자신을 발견하고는 합니다.

세상에는 사지육신은 멀쩡하지만 저처럼 다른 사람에게, 혹은 사회에 기여함이 없이 그냥 식량만 축내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때 때로 남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해악 을 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이 돌도끼를 들고 산과 들을 뛰어다니며 사냥 을 하던 시대가 아닌만큼 단지 육체의 결함만으로 비정상인으로 규정하는 것은 잘못 된 사고 방

식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사지육신 멀쩡하면서 사람들에게, 사회에, 그리고 민족성원 전부에게 해악을 끼쳐온 그런 사람들이 정말 비정상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바 장애인에는 크게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선천적 장애와 후천적 장애.

그런데 어떤 일인지 이런바 장애인은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면서 더 많아 졌습니다.

후천적 장애의 증가는 말할것도 없고 선천적 장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학술적 지식은 제겐 없습니다만 많은 경우가 공업화에 따른 유전적 변이에 의한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물론 위의 경우와는 별개의 선천적인 경우도 있겠지요. 하지만 결국 이런바 장애인의 문제는 사회전체가 끌어안아야 할 문제라고 믿습니다.

장애인도 이 사회의 일원으로 태어난 이상 사회를 구성하는 당당한 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 할수 있는 교육을 받을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부나 사회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떳떳히 요구해야할 교육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래저래 따지고 들다보면 문제해결의 고리는 정부가 쥐고 있습니다. 정부는 언제부터지 기억도 나지 않지만 선진조국의 미래를 외쳐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교육과 복지정책이 나아지는 기미는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말이 급진적이고 아주 획기적인 변화를 바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조금씩이라도 변화의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지금은 문명시대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관료들이나 정책을 입안 하는 이들의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시각은 별로 변한 것이 없어보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인간중심의 사고보다는 물질중심의 사고와 그릇된 실용주의에 매달리 있는 것 같습니다.

물거품 같은 말과 구호의 시대가 하루 빨리 종말을 고하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 처럼 살수 있는 사람중심의 세상이 오기를 기원하며, 작게나마 도움을 이 되지 못하는 단지 육체만 멀쩡한 사람이 미안함을 전합니다.

번호:9/28 토론자:HANEUL 수신자:ALL 토론일시:93/11/17 11:36 길이:47줄 ***** 장애아의 교육권 보장되어야... *****

얼마전, 안산의 선진학교 입학을 둘러싼 장애아 부모들의 문제제기는 장애인 교육권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이 교육을 받고있는 장애인의 두배나 되는 현실에서 선진학교의 경우는 불거져 나온 하나의 표본에 불과 합니다. 즉 전국 어디에서나 이와 같이 장애인에 대한 교육권 침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으며, 장애인들은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1979년부터 시행되어온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해 일반교육과 분리된 특수교육 이 장애인교육의 기초로 다져지고 특수교육의 발달을 주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장애인의 교육권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한 무책임은 이제 무감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선진 학교의 경우는 지역적 공통성이란 이유로 집단화 되고 사회문제화 되었지만, 실제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한 수많은 장애인들은 교육을 포기하거나, 무리하게 일반학교에 (물리적)통합교육을 시도합니다. 심지어 편입을 위해 뒷돈(그 규 모가 일이십만원이 아니라)을 들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현재 세계적인 추세는 가능한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발달기를 겪는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리교육을 최소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실질적 의미의 교육권 보장에 접근하고자 하는 나름의 이념에 근거하고 있으며, 실현 가능성은 끊임없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교육이념 에 바탕한 계획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교육의 기회조차 박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선진학교에서 입학을 거부당한 장애 아동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다른 특수학교도 정원이 차서 들어갈 수 없고, 장애아들에게 특화된 개별 프로그램이 전무한 일

반학교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결국 교육을 포기하고 또 한해를 보내야 합니다.

국민의 4대 의무라고 해서 국방이니 납세니 합니다. 이를 거부하면 국민 취 급을 못받고 범죄자가 되는데, 국가가 교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이처럼 무책 임하고 무감각해질 수 있습니까?

만약 어느 지역에 학교가 없어, 혹은 학교가 부족해 학령아동이 입학하지 못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장애인도 국민의 한사람으로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의 교육권이 침해되는 현실에 무감각합니다. 그야말로 어느 영화의 제목처럼 '그 들도 우리처럼'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특수교육, 즉 장애인의 교육권보장을 위한 기초이념부터 다시 세워져 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내용, 교육기회의 실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옛날 장애인복지신문의 사설에서

번호:10/28 토론자:HANEUL 수신자:ALL 토론일시:93/11/22 14:08 길이:31줄

안녕하세요~~~

이 토론실을 개설한 의장입니다..

저도 섬과 동호회 때문에, 이 토론실을 챙기지 못 했습니다..

장애 아동 교육이라는 딱딱한 주제 때문인지...

많은 글들이 올라 오지 않는군요...

우리 주위에는 몸이 불편하여, 학교 교육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장애인이니까 하는 당연시 하는 모순된 논리가 있습니다.

그 러나, 이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장애인도 이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으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자고 외칩니다..

이러한 것을 위 해서는 장애인도 알 권리와 교육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몸 [D]이 불편하다는 이유 때문에, 알 권리와 교육 받을 권리가 침해 당해서는 안됩니다..

번호:11/28 토론자:BLEUCIEL 수신자:ALL 토론일시:93/11/23 10:18 길이:133줄 626제목 : 속
명적 사랑...?

줄수 : 0/62 번호 : 626 등록자 :

아무게 [xxxxxxxxx] [93/11/16] 조회 : 30

----- 저는

사랑을 못 해 봤습니다.

아니, 가족의 사랑은 많이 받고 있고 또 가족은 사랑하고 있으니,
사랑을 해 봤고, 사랑 중이라고 해야 겠지요...

그러나, 제가 말하고픈 "사랑"은 가족간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시리라 생각 합니다.

이성간의 사랑...

저도 이성간의 사랑을 해 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어떤것이길래,

영원한 문학의 주제가 되고, 세상 모든 인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장 소중한다고 여기는 "생명"마저도 쉽게 버릴 수 있
는지...

저도 이런, 생명도 바칠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면, 하고 싶습니다.

이런, 속명적인 사랑을 하면, 장애도 문제가 안되겠지요...

하지만, 짝사랑도 못 해 본, 저에게 속명적 사랑이 찾아 올리가 없겠지요. 감히 누굴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지 않았으니까요...

짝사랑도 못 했다면, 27년... 제 삶이 헛된 삶일까요...

용기가 너무나 없는걸까요...

장애인이란 생각때문에, 짝사랑도 할 용기가 나지 않았으니까요...

요즘에는, 괜히 외롭다는 생각이 들고,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프듯같고, 밤에 잠이 안 와서, 전화료 걱정을 하면서도 푸른솔에 들어 와도, 대화실이나 게시판에서는 농담이나 주고 받고 쓸데없는 글이나 써 있어서, 푸른솔을 여기저기 헤매이고 다니다가 전화료 낭비만 하고 나옵니다...

괜히 들어 갔다는 생각을 하면서...

책도 보고 싶지 않고...

하나 남은 누님이 결혼한다는 생각때문일까요...

이럴때 '사랑에 빠져 봤으면...'하는 생각이 듭니다...

흐흐... 말이... 아니, 생각도 해서는 안될, 생각을 하죠... 흐흐...

외롭고, 가슴이 텅 빈것 같을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가슴을 콕!콕!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입기[번호] 쓰기[W] 초기[T] 목록[LS,DIR] 상위[P] 가기[GO] 라인변경[L] 삭제[D] 이전[A] 다음[Enter] 종료[X] 연속[PR] 수정[ED] 찾기[LI,LT] >>

제목 : 삶...?

줄수 : 0/41 번호 : 634 등

록자 : 아무게

[xxxxxxxx]

[93/11/18]

조회 :

17

----- 오늘도

컴 앞에 앉는다.

뭘 할까 생각을 한다.

그러나, 할게 없다.

고작한다는게,

이런 쓸데 없는 글이나 쓰는게 전부다.

아...

난,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인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러나, 자살할 수는 없다...

부모님때문에...

아니, 그것은 핑계일지도 모른다...

내 삶도, 삶인데 왜 자살 해야 한단 말인가?

새로 태어 나기 위해서?

난, 내세를 믿지 않는다.

오직 현세만이 있을 뿐이다.

내삶도 한번 뿐이다.

한번 뿐인 삶을 이렇게 살아야 하나?

아니, 이렇게 살 수밖에 없나?

정상인들처럼, 보람차고 신나게 살 수 없나?

아니, 장애인도 보람차고 신나게 살 수 없을까?

그런 삶이 왜 내게는 찾아 오지 않을까?

읽기[번호] 쓰기[W] 초기[T] 목록[LS,DIR] 상위[P] 가기[GO] 라인변경[L] 삭제[D] 이전[A]
다음[Enter] 종료[X] 연속[PR] 수정[ED] 찾기[LI,LT] >>

이 건 서울의 장애인 전용 BBS라고 하는 푸른솔 BBS에 올라온 어느 장애인의 솔직한 삶의 고백입니다..

이분은 장애 정도가 심하고, 부모님의 무관심으로 인해 정규 교육을 못받았습니다.. 특수학교나 검정고시도 못 받았으며, 현재의 27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개의 장애인들의 현실입니다...

이 분의 이름을 밝히지 못한 것은 이분과의 상의없이 올렸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 의장이... *

번호:12/28 토론자:CHOONG11 수신자:ALL 토론일시:93/11/24 00:57 길이:48줄 이 시는 뇌성
마비 장애인 신학생 백원옥 서정시집
사금파리 글모음 하나 [홀로 한 사람은 ...] 에 실린 글입니다..

*

뇌성마비 아이에게
아름다운 꽃을 내게 선물하면
해맑은 웃음피며
흔들리는 몸짓으로 다가서는 아이야
사람들이 보내는 서글픈 시선이
두려워
세상을 숨어 숨어
홀로 서려는 나의 아이야
너무도 빨리 알아버린 고통을
그래서 슬픈 영혼으로 싸안으며
일그러진 몸으로 일어서는 뇌성마비 아이야
가진 것이 없어도 모든 것을 주었고
아는 것이 없어도 모두를 가르쳤으며
사랑받지 않아도 모두를 사랑했던
푸른 하늘을
사랑하는 너에게 주고 싶구나
내가 뿜어내는 벽찬 숨소리에서
송이 송이 떨어지는 땀방울에서
해돋는 아침이 다가서고
별판을 달리는 사슴을 만나는 구나
목발을 짚고 걸어가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는
손으로 글씨를 쓸 수 없어
발로 글을 쓰고
기뻐하는 아이, 뇌성마비 아이야
그 모습 그대로
영혼 깊숙이 울리는

뜨거운 기도를 하려으나
작은 기적을 이루는
눈물 속에서 피어나는 너의 아름다운 꽃을
소중하게 피울
눈물로 죄 씻을 기도를 하르르나.

번호:13/28 토론자:GRSDS 수신자:ALL 토론일시:93/11/24 22:26 길이:8줄 우리 장애인들 아
니 이땅의 소외받고 놀림받는 모든이들에게 가장 중요한것은 우리는 어떤위치에 있고 무엇
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가라는 의문에 대한 해답입니다.

우리가 깨어나고 우리가 문제해결의 주체라는 의식을 얻었을때만이 우리가 그래도 인간답게
살권리 즉 교육의 권리를 얻을수 있습니다.

말은 쉽습니다.그리고 언제나 핑계는 많습니다.

이 토론실에서는 원론이 아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우리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에관한 우리
의 실천과제들을 다른사람이 아닌 우리 장애인의 목소리로 찾아야 겠습니다.

번호:14/28 토론자:BLEUCIEL 수신자:ALL 토론일시:93/11/25 14:17 길이:18줄
안녕하세요 ? 의장입니다..

아이디가 다르다고요 ? 요건 팝 아이디죠...

아 래.. 어느 장애우이야기에서 와 같이..

정상적인 교육 만 받는다면, 무슨일이든 할수 있는 장애인들 이 많습니다..

부모의 무관심 내지는 사회의 방조로 의무 교육 조차 받지 못쥬잔 하는

데, 이문제를 지금까지 지 수수 방 관해 온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의무교육조차 받지 못하는 장애 아동이

많습니다.... 쯤...

번호:15/28 토론자:CHOONG11 수신자:ALL 토론일시:93/11/25 21:02 길이:40줄

여기가 질문을 해도 되는곳인지 모르겠어요...

먼저 의장님이 장애자와 어떤 관계가 있는분인지 알고싶어요 혹시 장애자이거나 주위에 장
애자가 있는거라면 어떤장애자와 관련이있는지요? 장애의 종류도 여러가지입니다..

농아인, 눈이 안보이는사람, 뇌성마비, 몽고리즘, 사고로 다친사람, 또 장애정도도 여러가지여
서 어느정도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교육권보장법에 대한 얘기를 한것인지요?

사실 일반인은 장애인에 대해 잘 모릅니다..

아니 제가 잘 몰라서 다른사람들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전 뇌성마비인들이 보통사람들과 생각하는건 같다는걸 전엔몰랐습니다.

외관상으로 그렇게 보여서 지능도 좀 낮은게 아닌가 생각했었죠..

그 법을 만드는 분들도 혹시 모르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하는생각도들구요..

어떤 홍보도 필요하겠죠..

근데 뇌성마비인들이 모두가 다 지능은 보통사람과 비슷한가요? 몽고리즘같은 경우는 염색
체가 이상이 있고..

지능이 낮다는 얘길 들은거 같은데요..

이런분들은 교육받는데 좀 문제가 되지 않나요?

일단 가장 궁금한것은

나중에 사고로 다친장애인 말고...

뇌성마비나 몽고리즘, 저능아(? 이런표현을 써도 되나요?)들이 본인의 장애정도를 어느정도
알고있고..

회복가능성을 알고있고 회복하면 어느정도인지 그런것을을 알고있는가 하는건데요..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기 아래 어느 장애우 이야기... 에서처럼 나이가 들었을 때 어떻게 살아가나요? 의장님께서 아래서도 얘기한것처럼 실제로 장애인들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어디서 살아가나요?

의장님께서 말하는 교육법이란 의무교육에 관한애기가 있던데..

뇌성마비같은 경우 의무교육보단 신체교육(?)이라고 해야하는지.. 말이 갑자기 생각이 안나는데..

그것이 더 중요할거 같은데요...

좀더 일찍 시작하면 신체적으로 더 회복가능성이 있나요? 어느정도까지 회복되고 있는지요....

제가 아래 글에서 잘 이해를 못하고 말씀드린건지 몰라도 장애인이 몸이 불편할 경우 의무교육을 안받아도 된다는건 당연한것이 아닌가요?

의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장애인은 어떤장애인인지 궁금합니다..

두서없는 글 죄송하구요..

번호:16/28 토론자:BLEUCIEL 수신자:CHOONG11 토론일시:93/11/26 13:08 길이:36줄

아래에도 밝힌적이 있었던거 같은데, 전 뇌성마비 장애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장애의 종류도 여러가지입니다..

시각장애 - 맹인, 약시자.

청각장애 - 농인

정신지체 - 정신박약, 몽고리즘으로 표현되는 것도 여기다가 포함..

지체장애 - 소아마비, 근디스트로피, 성장장애(난장이), 뇌성마비...

모든 장애인들을 다 의무교육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뇌성마비장애인들도 보통사람들과 생각하는 건 같습니다.

근데 뇌성마비장애인들은 종류가 여러가지이고, 원인도 여러가지 입니다.

원인과 종류에 따라 지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종의 중복장애같은 경우는 지능에 이상이 있습니다.

또, 교육받은 수준에 따라서도 지능이 낮아지고, 높아지는 경향도 보입니다.

몽고리즘 같은 경우는 정신지체에 해당됩니다.

23번째 염색체가 변이를 일으켜 발생하는 장애로,

정신지체까지 수반되는 장애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정신지체장애인들은 교육하는데 애를 먹는 걸 많이 보아왔습니다.

본인의 장애정도를 어느정도 알고있느냐는 것은

교육받은 수준에 따른 문제라고 봅니다.

회복가능성은 교육과 치료를 병행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떤 장애인들은 일반인과 거의 대등한 위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못 배우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들은 집에서나 장애인 복지 시설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의 눈에는 안띄일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국의 사회사업가 헬렌 켈러여사, 영국의 천체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처럼 정상적인 교육만 받는다면, 어느 분야에서든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애인이 우리 사회에도 많이 있습니다.

* 의장이.. *

번호:17/28 토론자:HYOUNG1 수신자:ALL 토론일시:93/11/27 01:06 길이:37줄

안녕하십니까? 우연히 토론실을 읽어보다 좋은 주제라 생각하기에 한말씀 적을까 합니다.

얼마전 tv를 보다 PD수첩을 보고 크게 놀라고 부끄러웠습니다.

장애인 교육문제를 다룬 것인데 어이없게도 거의 대다수 장애인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고 그저 사회의 불필요한 존재로만 사회란 골목에 쳐박여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육을 받는다면 정상인들과 다름없는데도 불구하고 냉대되고 있는 현실을 전혀 알지못한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왜 그럴까하는 의문을 가져보았지만 그것이 너무나 어이가 없어 더욱더 할말을 잃었습니다. 만약 장애인들까지 의무교육이 실현 된다면 교육재정이 동남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부로서는 더욱더 힘들고 아무래도 국민총생산의 5%를 내기 어려우신 정부로서는 현재의 체제가 더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선진국진입을 왜치며 세계제일의 교육국임을 자부하는것 은 분명 모순되는 일일 것입니다. 몇해전 영국의 세계적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박사가 내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몸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재가 된 박사가 만일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다면 한국의 스티븐 호킹은 세계과학사에 등장했올리가 어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 단지 장애인이란 이유로 초등교육조차 받지 못하는 지난 수십년간의 세월도 아쉬운데 이런 현실을 바로 잡지는 못할망정 장애인들의 의무교육은 아주 이전부터 있어왔기에 그런 내용의 법률은 만들 필요조차 없다는 법률이 바로 이 신한국에서 통과되어 대망의 출범이 있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제 의견이 태산을 옮길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순을 알면서도 이 법안을 만드시는 분들 이것만은 알아두십시오. " 장애인들도 인간입니다."

- 나그네 -

번호:18/28 토론자:CHOONG11 수신자:ALL 토론일시:93/11/28 19:04 길이:11줄
교육법이 어떻게 바뀌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문제는 장애자용 학교시설이 부족한겁니까?

그렇것 같군요..

자폐아들 같은 경우도 특수한 경우 같구요..

의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장애인에 대한 교육법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리고 우리나라에 특수학교에 대해 알고 계신것이 있다면 또 그 특수학교가 어떤 장애자를 위한 학교들인지도 알려주세요..

번호:19/28 토론자:RAINDAY 수신자:ALL 토론일시:93/11/29 06:21 길이:24줄 전 사회복지과 학생으로 장애인들과 같이 생활도 하였지만..

먼저 해야할 과제가 일반인들의 시선의 변화입니다 .. 그들도 할 수 있다..

는 것과 우리 정부의 복지예산이 문제입니다 점점 늘어나는 장애인 수에 비례하여 그것 보다 늘어 나지 않는 예산 그것이 문제이죠..

차가운 눈빛보다 그들에게 따스한 온 정이 전해 질 수 있는 말 한마디가 중요하죠.. 그리고 그런 교육기관이 세워진다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기성세대들의 의견때문이죠 그럼 이제부터는 병신이 아닌 같은 사람으로 봅시다... 그리고 교육기관을 알고 싶다 분이 있는 것 같은데 ...

우리 나라 즉 서울에서는 남부장애인복지 회관을 가면 각종의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하구요.. 수원은 북문쪽에 그런 협회가 있습니다 ...

학교는 수원은 자혜학교라고 있는데 그래도 상당히 괜찮은 교육기관입니다
그럼 안녕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메일을 주세요 .. ID는 RAINDAY입니다

번호:20/28 토론자:HANEUL 수신자:CHOONG11 토론일시:93/11/29 15:12 길이:34줄

일반아동과 장애아동을 굳이 구분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선진국에서는 일반아동과 장애아동을 한 교실에서 같이 교육을 하는 통합교육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6~70년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사회복지부분의 투자는 거의 없어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외국인 선교사나 일부독지가가 만든 장애아동수용시설이 전 부엌입니다.

80년대 5공이 출범하면서 민주복지국가건설을 내세웠고, 여기에 84년 세계장애인의 해를 맞아, 홍보전략 차원에서, 일반 국민학교 내에 특수학급을 설치하여, 장애인 및 학습 지진아동 교육을 맡는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1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는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 국민학교가 몇개나 있습니까 ?

또, 일반아동의 부모가 취학통지서를 받고, 학교를 안보내면, 벌금을 낸다고 들었습니다. 장애아동은 어떻습니까 ? 그냥 부모가 연기해 버리면 장애아동이려니, 생각하고 더 이상의 독촉도 안하고 벌금도 안 물린다고 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아래와 같이, 현재 장애인 등록을 실시하고 있고, 이것은 장애인의 취업 보장과 함께, 장애아동의 교육권 확보에도 더없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장애아동의 능력을 판별하는 시군구단위의 판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일반학교에 갈 능력이 있는 장애아동은 일반학교로 보내고, 다음에 특수학교(특수학급), 아주 심한 장애아동은, 정부에서 실시하는 가정방문순회교사제도란게 또 있습니다.

장애아동의무교육은 반드시 실시가 되어야합니다.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래도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대통령중심제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희망은 버리지 말아주세요~~

* 의장이.. *

번호:21/28 토론자:CHOONG11 수신자:ALL 토론일시:93/11/29 21:36 길이:24줄 우선 저는 정상인이란걸 말씀드립니다.

일반학교에서 일반인들과 공부하는것을 말씀하셨는데 일반학교에 갈 수 있는 장애인이라면 정신적으로 정상인과 같은 장애인들이라는 말씀인데 그랬을 때 장애인들이 일반인들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거라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일반인들이 비교당할 때 받는 스트레스와 같다는 생각입니다.

유치원이나 국민학교때부터라면 그 시기적으로 다른사람들과 비교를 많이 당하고 같이 공부할 때 놀리는 애들도 많이 있을거라 생각하는데요..

저는 장애인들이 정상인들과 다른 모습에서 상처를 많지 받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데.. 실제로 장애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더군요..

그 애들은 다른 애들로부터 끊임없이 질문을 받을텐데요..

언제부터 그랬니?, 왜 그러는데?, 그것도 못하니?

우수한 장애인들이(지능적으로) 그것때문에 좌절하는 일에도대해서도 생각해 보셨겠지만.. 그런일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좀 조심스런 질문이지만 장애인들이 자신의 신체적으로 더 발전성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많이 어떤 생각들을 가지는지 알고싶습니다.

이건 제가 장애인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생각들이니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합니다..

이토론에 참여하여 주셔서.....

***의장 드림 ***

번호:26/28 토론자:HANEUL 수신자:ALL 토론일시:93/12/03 17:34 길이:267줄

제목 : 공대위 소식지13호 교육법98조가 개정이 되었어요

*****공대위소식***** 호 수 : 13호

발행일 : 1993년 12월 1일(수요일)

발행처 : 장애인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주 소 : 서초구 방배 1동 922-16 진일빌딩 2층

전 화 : 521-5364 그림전송 : 584-7701

장애인교육법 국회 공청회 열려 -장애인 교육에 관한 이념, 시각 차

이 뚜렷해-

'현실'과 '이상'(?)

지난 11월 25일 국회교육위원회(위원장 조순형)는 '특수교육에 관한 공청회'를 갖고 장애인교육 관련단체 관계자의 증언을 들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공청회에는 김영환(특수교육협회 회장) 윤점룡(전주우석대 교수) 이영자(장애인부모회 충남지회장) 이남진(변호사.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이사) 김승국(단국대학교 교수) 서광웅(장애 인부모회 부회장) 등 장애인관련 전문가, 학부모가 참여해 장애인교육 관련 법안에 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오전 10시 조순형 교육위원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토론회에서 첫번째 진술인으로 나온 김영환 특수교육협회 회장은 특수교육진흥법 개정과 관련 해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의 방향은 완전 취학기회의 보장, 조기교육의 강화, 통합교육의 확대, 중등후기 교육제도의 신설 등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교육부의 개정안과 민주당안을 비교했다.

김영환 회장은 특히 조기교육의 강화와 관련해 정부 개정안이 조기교육의 기회확대, 사설 특수유아원의 양성화로 교육의 질적, 양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설 설비 및 인력확보 등에 필요한 소요예산이 막대하지만 특수교육 중 장기 교육계획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있어 현실성에 맞도록 되어 있는 반면 민주당 기본법안이 제시하고 있는 무상의무교육은 일반교육과의 형평성, 교육재정의 확보 가능성, 시설 설비의 확보 가능성, 전문인력 양성 가능성 등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른다고 말했다.

김회장은 그 근거로 3세부터 5세까지 조기의무교육 대상자를 4만9천5백명 으로 추정하고 5,300억의 교육비가 필요한데 이는 올해 특수교육 관련 교육 비 850억원의 6배가 넘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조기교육을 담당할 전문교사 5천여명이 필요함에도 연간 양성되는 교사는 3백여명에 불과한 실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5년 이상의 경과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두번째 진술인으로 나선 전주 우석대 윤점룡 교수는 "정부가 지난 9 월 제출한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에 보완된 것은 '순회교육, 파견교육'과 '일반학교의 장이 통합교육에 응해야 한다'는 것뿐이며 이것마저도 '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거나 특별한 단서가 붙어 있어 실효성을 가지지 못해 16년 전에 제정한 특수교육진흥법과 비교해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고 비판 했다.

더욱이 특수교육의 최우선 과제인 의무교육조차 규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동안 학교 장애에 장애아의 진단 평가와 취학 결정권을 위임해 '국민 학교 재수생'을 양산해 온 진단평가위원회도 교육부령으로 돌려놓아 그동안 무수히 지적되었던 입학관련 병폐가 그대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말했다.

이밖에 사립특수교육기관의 보조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한 것이나 개별화교육에 대한 세부사항이 없는 점 그리고 특수교육의 가장 기본적 이고 중요한 이념인 통합교육의 의미를 축소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문민정부의 특수교육법으로는 너무나 미흡하다고 정부의 개정안을 공박했다.

윤교수는 이번 특수교육 관련 법안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으로 의무 교육과 판별위원회를 들었는데 조기의무교육을 실시할 경우 30% 이상이 일반학교에 통합이 가능할 뿐 아니라 자폐아의 경우 40-50%가 일반학급에 통합되는 등 향상을 보여 장기적으로 국가가 특수비용에 드는 비용을 경감할 수 있기 때문에 유치원, 종합복지관, 사설조기교육원 등 기존 시설을 잘 활용하면 큰 재원이 없이도 실현 가능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통합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고 의무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판별위원회가 공평한 평가에 의해 적절한 교육적 배치를 할 수 있는 행정 기구로 자리잡아야 하며 이를 위해 각 시·군(구)교육청에 판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번째 진술인으로 나선 장애인부모회 총남지회장 이영자씨는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아이큐 50 이하의 특수교육 입학 자격이 특수교육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입학거부와 이를 둘러싼 금품수수 사례를 폭로하면서 악용되고 있는 판별위원회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방안과 장애아동의 교육권을 가로막고 있는 교육법 제 98조의 삭제를 주장했다.

이영자씨는 이와함께 장애발생 초기부터 이후 교육과정의 내용을 결정할 초기교육 과정을 설치하고 일반학교, 특수학교, 사회복지 시설 등 어디서나 취학통지서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적극적인 권리, 장애인교육권

한편 장애인 교육권의 헌법적 권리에 대해 이남진 변호사는 "헌법 제 31 조가 보장하고 있는 교육받을 권리는 교육받는 것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배려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고 있으며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는 '정신적 육체적 능력에 상응한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이기 때문에 장애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교육을 받을 권리 역시 헌법상 보장된 것"이라고 장애인의 교육권에 대한 법적 권리를 설명했다.

이와함께 "현재 교육법은 취학대상연령 아동에게 취학통지서를 발부하고 취학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의무이행을 거부할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있음에도 98조에서 '학령아동이 불구, 폐질, 병약, 발육불완전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하기 불능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고 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의무교육권을 사실상 침해하는 것"이라고 98조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이남진 변호사는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 그중 최소한 초등교육과 중등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수학교를 운영 설치함으로써 생기는 반사적인 이익이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적극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의무교육에 관한 규정 명문화' '구제조치가 명시된 판별위원회 구성' '법안 내용의 의무 강제규정화' '실효성 보장을 위한 적절한 처벌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과 장애인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제안한 '장애인교육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섯번째 진술인으로 나선 김승국 교수는 "특수교육을 요하는 장애인이 학령인구 중에 약 71만명 있을 것으로 추산되며 이중 경증장애인은 약 56만 명, 중증장애인은 약 15만명 정도"라고 학령기 장애아동 수에 관해 정부와 다른 수치를 제시하고 "현재 특수학교, 특수학급에 진학하고 있는 4만9천2 백명을 모두 중증장애인으로 간주하더라도 중증장애인의 삼

분의 이는 어떠 한 교육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승국 교수는 이와함께 "장애인이 사회인 또는 직업인으로 비장애인과 이웃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증장애인을 위해서는 통합교육 그리고 중증 장애인을 위해서는 특수교육기관을 증설하고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히고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일반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의무교육을 고등학교까지 확대는 것은 물론 사설조기교육실 이용의 과중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수유치원 신설, 유치원과 국민학교에 장애유아를 위한 유치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애인부모회 서광웅 부회장은 "특수교육 관련 법 개정의 쟁점은 의무교육이나 무상교육이나 하는 점"이라고 밝히고 "장애아동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의무교육이라는 표현이 더 확실하다"고 의무교육의 명시를 요구했다.

또한 조기의무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1세부터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사설교육기관에 조기 교육을 맡기는 일은 장애인교육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박하고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 평가위원회 참여' '부모교육' 등 장애아 교육에 부모의 참여확대를 요구했다.

드러난 시각 차이

진술을 마치고 오후에 계속된 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질의를 통해 조기의무교육 대상자 수와 예산확보 방안 그리고 특수학교 입학과 관련된 금 품수수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민자당 박범진 의원은 "의무교육대상의 범위확대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정부예산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냐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하고 "김영환 회장이 밝힌 5천3백억과 윤점룡 교수가 밝힌 3백억은 너무도 차이가 크다"고 서로 다른 예산이 나오게 된 근거를 물었다.

이에 대해 윤점룡 교수는 "조기교육 예산 3백억원은 장애인종합복지관, 남아도는 일반학교 교실 등 기존의 시설을 모두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인건비와 운영비만을 계산한 것"이라고 밝히고 "실제로 이정도 예산이면 조기의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산 산출의 근거를 제시했다.

특히 민주당 박석무 의원은 김영환 회장에게 "특수교육협회 회장이 예산 문제를 거론하면서 장애인교육에 관한 기본법이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질책하고 "우리의 경제수준으로 장애인교육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그정도 예산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정부 여당의 장애인교육에 관한 의지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윤점룡 교수는 김영환 회장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들었던 '일반교육과 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같은 선위에서 경쟁하라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반박하며 "개인적인 특성을 감안할 때 의무교육범위가 확대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은 장애인교육의 이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교수는 또 '교육재정확보 가능성' '시설 설비 확보 가능성' '전문인력 양성 가능성'도 기존의 시설이나 제도 등을 활용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김영환 회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편 학교장에게 모든 권한이 위임돼 제 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판별 위원회에 대해 김승국 교수는 "판별 자체가 분리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판별위원회를 반대한다"고 밝히고 장애인 등록시 장애영역과 등급에 대한 판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될 것이라고 판별 위원회자체를 반대했다.

이에 대해 윤점룡 교수는 "특수교육의 판별기준과 장애인등록의 판별기준은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밝히고 "판별위원회는 분리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통합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기 구로 장애인교육의 센터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별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촉구했다.

또한 교육법 제 98조가 의무교육을 시킬 수 없는 학부모들을 구제하기 위 한 것이지 장애아의 특수교육을 막는 독소조항이 아니지 않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이남진 변호사는 "교육법 98조는 사실상 장애아의 의무교육에 사실상 저해요소"라고 말하며 "새로 만들어지는 법에 의무교육조항을 넣는다면 교육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교육법개 정에 어려움을 표시하는 정부측에 방법을 제시했다.

이날 교육부측 답변자로 나온 이원옥 보통교육국장은 "학교 판별위원회가 대상자를 선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별위원회의 문제점을 시인한 뒤 "시 도 교육청에 판별위 그리고 일선학교에 진단평가위원회를 뒤 역할분담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원옥 국장은 93년 미취학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학교에 진학하 지 못한 아동은 7천5백61명으로 이중 1천5백19명은 특수학교로 진학해 장애 아로 취학하지 못한 숫자는 1천 2백48명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폐아'를 정서장애와 분리하고 자폐아를 위한 교육기관 신설을 요 구하는 부모들 에게 82년부터 옥영학교에서 자폐아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고 밝혀 공청회에 참석했던 부모 들로부터 '거짓말을 하지 말라'며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특히 공청회 말미에 자폐아 부모인 석미란씨가 나와 자폐아 교육의 어려 움과 교육기관 부족 문제를 증언하기도 했다.

새로운 지평을 향해

아침 10시부터 오후 6까지 장장 8시간이 넘게 계속된 이날 공청회에서 는 의된 사항은 앞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 등 법률안 제 개정 작업에 참고자료 로 활용되며 법안심사소위원회 에서 확정된 법안은 국회본회의에 상정 의결 됨으로써 확정된다.

정재혁 민주당 교육전문위원은 "국회가 장애인교육 문제로 진술인을 출두 시켜 공청회를 연 것 자체가 처음 있는 일로 대상자 파악, 실시방법 등에 관한 내용만 확정되면 법안 만 들기 위한 시간은 충분하다"고 말하고 "미 국식으로 단계적인 예산을 배정하든지 현행 초 중등 의무교육 실시방안 처 럼 지역별로 단계적으로 실시하든지 우리 실정에 맞는 독특한 방법을 강구 해야 할 것"이라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장애인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공청회에 대해 "장애인 의무교 육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법 98조의 삭제, 시 군 구별 판별위원 회 문제와 벌칙규정의 신설 그 리고 정기국회에 장애인교육 실시 상황을 정 기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것 등의 사항은 양보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장애인 교육에 관한 기본법의 연내 제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 라고 공대위의 입장을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공청회를 끝으로 장애인 교육관련 법안은 입법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를 모두 마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들어갔으 며 공대위 역시 11월 29일 그 동안 '장애인 교육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위 해 받았던 5만3천여명의 서명용지를 국회의장 에 제출함으로써 공식적인 일정을 마무리했다.

공대위는 이에 앞서 지난 11월 6일 종로 3가 '탑골공원'에서 '장애인 교 육에 관한 기본 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명동성당까지 거리행진을 하면서 장애인교육현실과 기본 법 제정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기도 했다.

지난 2년간 계속된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한 움직임은 한가지 사안으 로는 가장 오랜 시간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동원된 '사건'이었으며 장 애인 스스로는 물론, 부모, 교 사를 비롯 교육전문가 등 그동안 법의 일방적 인 '대상자'들이 '권리의 주체'로 새롭게 태 어났던 변화를 일으키기도 했다.

1894년 평양에서 '로제타 셔우드 홀'이 시각장애인 오봉례에게 점자공부를 시키면서 시작된 근대적인 장애인 교육은 이제 1백년의 역사를 맞아 장애인의 '권리선언'과 '참여'라는 새로운 지평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공대위, 장애인교육권 확보 위한 서명지 국회 제출

장애인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장애인교육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위한 서명지'를 11월 29일 오후 4시 30분경 국회 의안과 청원계에 제출했다. 공대위는 지난 5월8일 명동성당 입구에서 '장애인교육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위한 가두서명전을 개최한 이래 받은 약 6만여명의 서명지를 국회에 제출, 현재 심의되고 있는 장애인교육 관련 법안 제 개정안을 결정하는데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내다봤다.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장애인교육권 확보를 위한 청년 연대모임'은 7월부터 3개월동안 토요일과 일요일을 이용하여 명동성당 입구, 파고다공원 입구, 대학로, 서울역 등지에서 일반 시민을 상대로 장애인교육권 확보를 위한 홍보를 하는 한편 서명운동을 펼쳤다. 또한 11월 6일 '장애인연합회'는 약 1만여명이 서명한 용지를 공대위 사무국으로 보내오기도 했다.

교육법 98조 개정

장애아동의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조항으로서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크게 제한한 교육법 98조가 11월 30일자 개정되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법 98조는 "학령아동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96조 및 제102조의 2항의 규정에 의한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로 개정되었다.

교육법 98조는 학령아동이 불구, 폐질, 병약, 발육불완전,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아동의 경우 교육받을 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그동안 장애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크게 제한하고 있었다.

개정안은 불구, 폐질, 병약, 발육불완전 등의 용어가 삭제됨으로써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제한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라는 규정은 자칫 장애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제한할 수 있어 이 부분에 관한 명확한 해석과 함께 악용될 수 없도록 적절한 감시가 필요한 것으로 장애인교육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장애인교육 관련 법안 1차 심의 마쳐

국회 교육위원 법안 소위원회는 지난 11월 27일 장애인교육 관련 법안에 관한 1차 심의를 마쳤다.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심의내용을 아직 공개하기는 이르다며 다음(12월 1일부터 3일 사이)에 있을 법안 심의를 위해 공대위에 의견제시를 요구했다.

이에 공대위는 민주당안 제3조의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범위에 장애아를 삽입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부칙 2항에 교육부는 장애아동의 완전한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97년까지 단계별 특수교육실시계획을 마련하여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 삽입도 요청했다.

오는 12월 3일이면 장애인교육 관련 법안에 관한 윤곽이 뚜렷이 들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12월 17일에 있을 본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번호: 27/28 토론자: CHOONG11 수신자: ALL 토론일시: 93/12/04 19:07 길이: 31줄 의장님께서는 장애인과 일반인과 생활하는걸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군요...

저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역시 불편한건 장애인쪽일거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아무리 일반인의 인식이 바뀐다고 해도 그건 일부일거라 생각해요...

시일도 많이 걸릴거라 생각하구요..

하여간 그건 그렇고

이런 질문만 해서 죄송한데요...

전 뇌성마비같은 경우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얼굴 표정으로 그들의 생각을 알아보기가 힘든거 같아요..

생각하고 표정이 따로노는거 같은데..

어떤 때는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하는 애긴데

뇌성마비인들은 보통사람들의 표정을 보고 어느정도 알아듣는지요? 물론 기본적인 표정은 알아들을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농담식으로 하는말을 그들이 알아듣고있는지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농담은 안할려고 하는데.. 재미없자나요~ 헤 내가 애긴 할 수 있어도 말을 잘 못알아 듣겠어서 대화하기가 좀 힘들어요..

내가 하는 말을 내 생각대로 받아들이고 있는건지도 모르겠고..

또 그들은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보고 어떻게 느끼는지도 궁금해요..

이 질문은 진짜 죄송해요...

그렇지만 장애인을 이해하려고 하고 장애인과 대화를 하고싶어서..

기본적은 그들의 생각을 알고 싶은 겁니다..

실례된다면 진짜 죄송합니다..

또 한가지 더 알고 싶은게 있는데

의장님께서는 지금 방통대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방통대는 장애인이 어느정도나 다니고 있고 뇌성마비나 다른 장애인별로 분류해서 알 수 있을까요?

혹시 알고계신다면... 부탁드립니다...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번호:28/28 토론자:FREEMAN1 수신자:ALL 토론일시:93/12/06 00:33 길이:19줄

안녕하세요.

우선 장애인과 친숙해야 되겠지요.

넌 장애인이니 특수 교육을 받아야 된다면,

특수학교에 보내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특수한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장애가 경미한 사람들도 그런곳으로 보내어진다면....

글쎄요...

그런 분들은 영원한 장애인으로 남겠죠.

마음의 장애인으로.....